드론매거진

2024 OCTOBER 10

DRONE MAGAZINE

“자연과 어우러지는 버티포트를 꿈꾸다”

INTERVIEW

이탈리아 건축가 지안카를로 제마에게 듣다

REPORT

글로벌 드론 산업 동향

PEOPLE

고양시, UAM 산업 거점을 꿈꾸다

이동환 고양시장

COLUMN

새로운 높이에서 세상을 보다

DJI 브랜드 스토리

도론매거진 · 홈페이지

A company that blesses the world

CONTENTS

08 **DRONE SHOT**

10 **PEOPLE**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시, UAM 산업 거점으로 거듭나다

14 **REPORT**
글로벌 드론 산업 동향 2024

30 **PEOPLE**
이탈리아 건축가 지안카를로 제마

36 **INTERVIEW**
UAAN을 통해 드론 간 소통이 가능해진다
탑스커뮤니케이션 황현구 대표를 만나다

42 **COLUMN**
새로운 높이에서 세상을 보다
DJI 브랜드 스토리

48 **INTERVIEW**
중부권 드론 산업을 향한 열정과 도전
아이엔항공 인지환 부사장을 만나다

54 **REVIEW**
DJI NEO 작고 가볍지만 기능은 더 무거워졌다

58 **FOCUS**
연이은 배터리 화재, 대비책은?

62 **PEOPLE**
하늘을 담아내는 이야기
드론 아티스트 융군

68 **PEOPLE INSIGHT**
글로벌 서비스 oVice의 한국지사
정한솔 총괄에게 듣는 스타트업 생존기

72 **BREAKING NEWS**
이란 해군, 새 드론 항공모함 건조중
상업용 컨테이너선을 개조한 드론용 항공모함

76 **INFORMATION**
공항이 불안하다!
항공기 운항 위협하는 불법 드론

82 **DRONE NEWS**
중국 주재 기자가 전하는 中 드론 산업 소식

88 **MEDIA PARTNERSHIP**

90 **PREVIEW**
DronTech Asia
2024 태국의 대표 국제 드론 전시회

93 **INTERNATIONAL EDITION**

94 **PEOPLE**
Italian architect Giancarlo Zema,
President of GZDG Group

100 **COLUMN**
See the world from a new height
DJI Brand Story

106 **PEOPLE INSIGHT**
Survival Stories of Startups, as Told by Hansol Jeong,
Head of Korea Sales at oVice

109 **BREAKING NEWS**
Iran's new drone carrier nearing completion
Sources confirm Iran has modified a container ship into a drone carrier.

112 **CHINA DRONE NEWS**

116 **BOOKS**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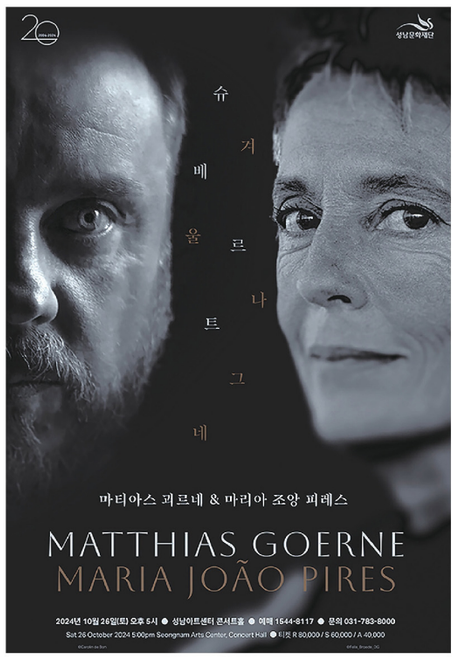
120 **ART EXHIBITION**
예술로 성찰하는 현대사회 이야기
〈어반아트: 거리에서 미술관으로〉

122 **ACT**
소박하게 전하는 우리네 '삶' 이야기
〈나와 할아버지〉

124 **MUSIC**
두 거장이 들려주는 단 하나의 겨울나그네
〈마티아스 괴르네 & 마리아 조앙 피레스〉 합동공연

126 **박람회 일정**

127 **독자와 함께**



이탈리아 건축가 지안카를로 제마는
중국 드론 제조사 Ehang과 함께 바오밥 버티포트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버티포트를 제안했다.
자연의 일부인 나무, 바오밥 나무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버티포트는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닌 자연 환경과 어우러지는
건축물을 짓겠다는 그의 신념을 담고 있다.

DRONE MAGAZINE

발행인 최종철
편집인 백승선
부회장 Tony Lee
고 문 김윤수

편집부 편집국장 | 백승선
기자 | 김상준
방사포
박종경
박종경
콘텐츠 사업부 총괄이사 강마리아
콘텐츠 사업부 이현주
해외 주재기자 (영국) 최원우
해외 주재기자 (선전) Rachel
편집 디자인 김현림
AD 디자인 이상현

드론매거진 월드 미디어 파트너십
대한민국 | Drone Show Korea
중국 | WUAVF
일본 | JapanDrone
태국 | DRONTECH ASIA
인도네시아 | IDE Indonesia Drone Expo
이탈리아 | DronItaly
사우디아라비아 | SAADEF
독일 | Drone Industry Insight
스위스 | Swiss Business Hub Korea
체코 | Unmanned Aerial Alliance Cezch Republic
미국 | Fairfax County EDA

발행처 드론매거진
061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85길 34,
스파크플러스 10층 1001호
제작·인쇄 (주)솔텍피앤디
Vol.12 2024. 10 / 등록번호 강남. 라 01055

본지의 판권은 드론매거진이 갖습니다.
본지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칼럼 및 기사광고 · 업체 기사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무관합니다.

- **정기구독 가이드**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드론의 모든 것', 드론에 관련된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알고 싶다면, 드론을 좋아하는 사람과 소통하고 싶다면, '드론매거진'의 가족이 되세요.
- **광고문의 및 기사제보**
  TEL: 070-8807-1010 / **FAX** : 0504-415-5819
  연간구독료: 180,000원
  입금계좌: 하나은행 229-910412-04807 최종철 드론매거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탈리아 건축가 **지안카를로 제마**

지속가능한 친환경 버티포트를 짓다

김상준 기자 | joon1817@kdrm.kr

지난 2021년부터 이탈리아에서는 친환경 버티포트를 짓는 '바오밥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서 드론택시 사업을 리드하고 있는 중국의 UAM 기체 제조사 '이항'(Ehang)과 이탈리아의 자연과 하나되는 건축 디자인으로 유명한 지안카를로 제마 그룹(Giancarlo Zema Design Group, GZDG)이 함께 추진했다. 〈드론매거진〉은 당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GZDG 그룹 회장 겸 건축가 지안카를로 제마와의 인터뷰에서 '바오밥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와 이탈리아 드론산업 및 건축에 대한 소신과 비전을 들어보았다.

〈드론매거진〉과의 인터뷰를 시작하며 자신을 "자연, 예술과 과학에 대한 열렬한 애호가"라고 소개한 지안카를로 제마 GZDG 회장 겸 건축가는 1973년 로마에서 태어나 '라 사피엔자' 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했다. '라 사피엔자' 대학교는 1303년에 설립되어 이탈리아 내에서도 가장 유서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 중 한 곳이며, 유럽에서 규모가 큰 대학 중 한 곳이다. 이후 그는 여러 국제적인 협업을 거쳐 지난 2001년 로마에서 GZDG를 설립했다. GZDG는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산업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UAM 산업의 핵심 인프라 요소인 버티포트 건축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지안카를로 제마 회장은 이탈리아 내에서도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으로 매우 잘 알려진 건축가다. 주로 혁신적인 건축 및 디자인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다. 특히 그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유기적 형태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독창적인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바오밥 프로젝트'도 역시 자연의 일부인 나무(바오밥)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

"지안카를로 제마 그룹은 현대 건축과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들의 작품은 환경 친화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접근을 통해, 건축과 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드론산업은 어떻습니까

이탈리아의 드론산업은 현재 농업과 복잡한 인프라의 유지보수를 위한 영상 관제, 구조 분야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용 드론 분야에서는 아직 이륙할 수 있는 드론 모델이 없을 뿐더러 뒤쳐져 있죠. 그러나 이탈리아는 eVTOL(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이탈리아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건축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가 중 한 곳이다.

피렌체, 콜로세움, 바티칸 성당, 피사의 사탑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건축물들은 대부분 이탈리아에서 탄생했다. 이탈리아 건축물이 유명한 수많은 이유들 중 단 하나만 꼽자면 다양한 건축 양식이 결합됐다는 점이다.

이탈리아는 오랜 역사 동안 다양한 문화적, 정치적 영향을 받아 건축 양식의 다양성을 가져왔는데 그 영향으로 고대 로마 양식, 르네상스, 바로크, 네오클래식 주의 등 다양한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있다.

이처럼 깊은 역사와 전통성을 지닌 이탈리아의 건축 기술과 도심항공교통(UAM)·미래항공모빌리티(AAM)·버티포트(Vertiport)의 만남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건축물을 준비하고 있다.

시스템과 인프라 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위치한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장소에서 체험형 항공 관광을 개발하기 위해 재정적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건축, 미술, 회화, 조각, 시 등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유산은 우리에게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인간적이고 자연과의 공존을 추구하는 미래를 상상하고 설계할 수 있는 DNA를 제공합니다.

바오밥 프로젝트 소개와 평가는

바오밥 프로젝트는 재활용 및 재활용 가능한 재료, 재생 에너지(태양열, 풍력, 지열, 자체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수소) 분야를 사용하는 바이오 아키텍쳐의 지능형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자연과 하나된 최초의 버티포트로 '새'가 휴식을 취하고 먹이를 먹는 대형 나무인 바오밥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되었죠. 대규모 녹지 공원과 자연 보호 구역을 상공에서 내려다볼 수 있다는 것은 항공 모빌리티 부문의 진정한 혁명이 아닐까라는 생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은 모두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사용자의 생활 경험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모두 중요하며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도 하나를 고른다면 아마도 다음 프로젝트, 그 다음 프로젝트, 그리고 또 다른 프로젝트라고 답하겠습니다.

각이 듭니다. 바오밥 형상을 한 버티포트는 하늘에서 눈에 잘 띄는 것이 특징입니다. 더 자세히 소개하면 바오밥 버티포트는 강철과 적층 목재 구조로 지어진 30미터 높이의 타워에 360도 창문, 대형 공용 공간, 카페가 있는 200㎡ 규모의 파노라마 레스토랑, 이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를 갖춘 세련된 내부를 자랑합니다. 물론 버티포트로써의 기능도 훌륭합니다. 옥상 테라스에는 좌석이 있는 녹지 공간과 전기 드론을 위한 세 개의 착륙 패드가 있습니다. 전기 드론은 착륙 패드에서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착륙 패드는 영국 회사 SOLAPAVE에서 제작한 최첨단 미끄럼 방지 태양광 패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300킬로와트(k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 조명과 표지판을 위한 통합 LED 조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회사 e-VERTI SKY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바오밥 프로젝트는 중국의 포레스트 레이크, 몰디브, 아랍에미리트 및 이탈리아에서 떠오르는 에코 투어리즘(친환경 관광) 부문을 공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UAM/AAM 분야가 발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아이디어가 거버넌스로 발전하고 지속 가능한 항공 운송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Ehang은 최근 몇 년간 자율형 여객 항공기(AAV)에 필요한 모든 인증을 얻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유럽, 미국, 중동 등 가장 유망한 지역에서 실제 비행 시연을 진행해 왔습니다. GZDG는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항공 관광의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기 위해 감성적인 디자인의 혁신적인 버티포트를 설계하고 개발 및 홍보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바오밥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는

바오밥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는 지속 가능성, 자연과의 통합, 그리고 혁신적인 디자인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버티포트가 환경의 일부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함께 어우러지며 사람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시아 UAM 시장을 바라봤을 때

아시아 기술이 가장 경쟁력 있다고 봅니다. 아시아는 기술과 경제, 정치적으로 이상적인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운송의 새로운 지평이 더욱 강력하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건축 회사로서 우리는 강력한 현지 금융 파트너와 함께 해외에서 높이 평가받는 이탈리아 특유의 감성을 지닌 체험형 버티포트의 대규모 인프라 네크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아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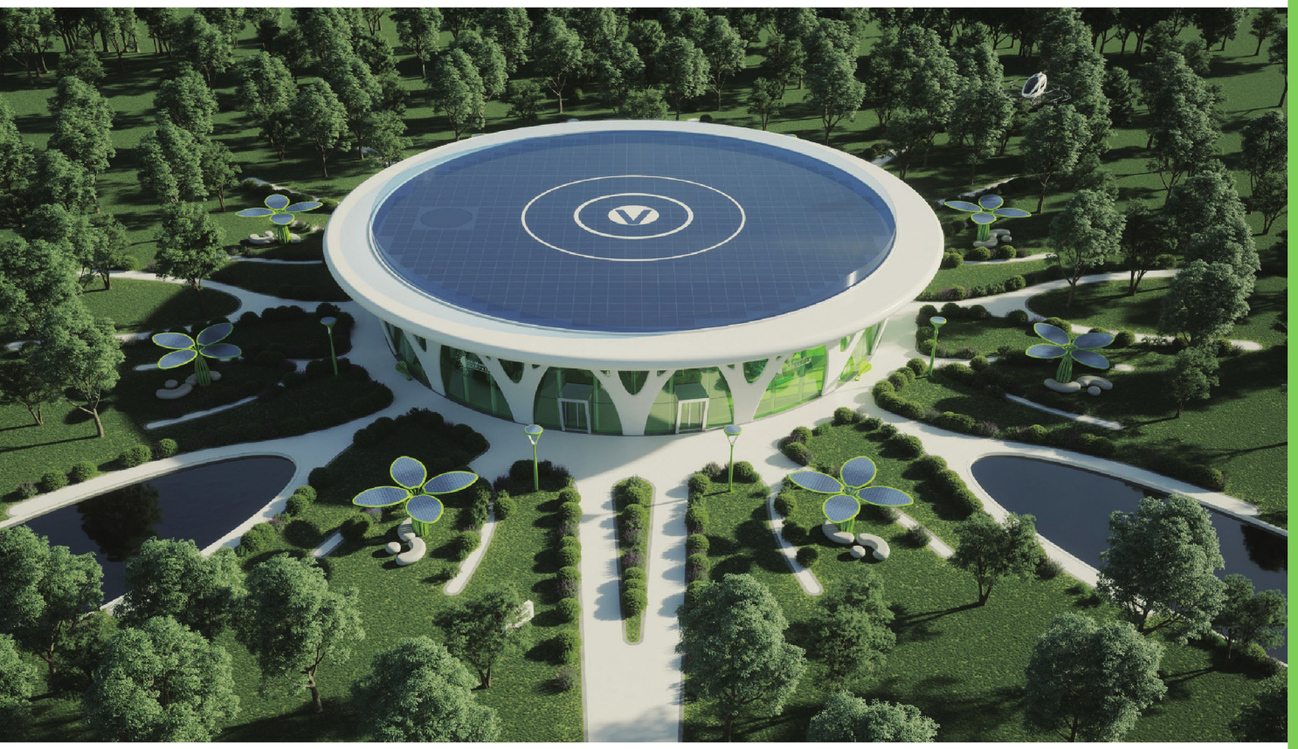
수중저택 '젤리피쉬 플로팅 홈' 디자이너

한국에서 우리의 디자인이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젤리피쉬 플로팅 홈은 실제 카타르에서 가장 복잡

하고 매혹적인 '수륙양용' 프로젝트의 일부였습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뻗어나가는 커다란 수생 동물처럼 떠 있는 스위트룸을 갖춘 최초의 럭셔리 반잠수식 호텔 리조트입니다. 두 개의 긴 넓은 팔 덕분에 수평으로 1km 걸쳐 뻗어 있습니다. 호텔은 수중 생물에 관한 인터랙티브 박물관과 물 전시 갤러리, 대형 주변 수족관, 전체 해양 공원 중앙의 수중 전망대로 연결되는 유리 터널이 있는 중앙 공용 환영 구역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긴 팔로 환영 구역과 연결된 피트니스 공간, 정원, 바다 위로 펼쳐지는 움직이는 무대가 있는 특별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더 작은 수상 플랫폼에는 인공 산호초 안에서 수중 전망을 즐길 수 있는 80개의 해파리 스위트가 정박해 있습니다. 각 플랫폼의 끝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부유식 건축물의 모든 곳을 이동할 수 있으며, 수상 교통수단도 제공됩니다. 수소 엔진과 수중 관측용 지구본이 장착된 20m 길이의 알루미늄 에코 요트 '트릴로비스'로 운항하며, 2006년 카타르 국왕을 사랑에 빠지게 한 이 프로젝트는 당시에는 너무 미래 지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 수소를 사용하는 것은 복잡한 기술이었습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바뀌었고, 이 꿈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며, 아마도 AAM을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해주신다면.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미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위한 지능형 인프라를 출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국영 고속도로 회사 ANAS를 위해 그린 아일랜드를 설계했습니다. 이는 스마트 도로를 위한 에너지 충전 허브이자 완전 독립형 조명을 갖춘 전기 자동차 초고속 충전소입니다. 또 고속도로, 의료 및 소방 구조·승객용 드론을 위한 버티스톱이 있는 데이터센터 건물도 설계했습니다. 이탈리아 국영 철도 FS그룹의 FS Park에서는 독립적인 최신 스마트 그린 파킹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버티포트와 함께 최초의 바레세 모빌리티 허브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수소 자동차를 위한 충전소인 수소 숲과 문화



분야에서는 이탈리아 노벨 의학상 수상자 리타 레비 몬탈치니를 기리기 위한 레비 몬탈치니 재단 전시 및 연구 센터를 설계했습니다. 자연, 기술, 지속 가능성, 감성 등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 수 있는 기능적이고 생태적인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매우 매혹적인 주제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은 모두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사용자의 생활 경험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모두 중요하며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도 하나를 고른다면 아마도 다음 프로젝트, 그 다음 프로젝트, 그리고 또 다른 프로젝트라고 답하겠습니다.

▶ 영문판은 94 페이지에 있습니다.

Giancarlo Zema 주요 프로젝트

▲ **Waternest** : 이 프로젝트는 자급자족형 수상 주거 공간으로, 재활용 가능한 소재와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여 설계됐다. 둥근 형태의 이 주거 공간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지원한다.

▲ **Amphibious** : 지안카를로 제마가 설계한 반잠수형 호텔 및 리조트로, 물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는 수중 환경을 감상하면서도 자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디자인이다.

▲ **Trilobis** : 이 프로젝트는 바다 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주거 유닛으로, 물속과 지상의 생활을 결합한 형태로 설계됐다. Trilobis 65는 지안카를로 제마의 유기적 디자인 철학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탈리아의 건축과 그 역사는

이탈리아 건축은 기원전 8세기 고대 로마와 그리스 예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회화 및 조각과 함께 예술적 표현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모든 서양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와 형태,자연주의의 조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은 민주주의, 자유, 창의성 및 사회 생활과 같은 우리 문화의 가치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는 지리적으로 작은 나라이지만 수세기에 걸친 역사에서 비롯된 이탈리아 건축, 디자인, 예술, 패션, 라이프스타일, 좋은 음식, 좋은 맛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기업과 금융 그룹, 아름다움, 자연 및 최첨단 기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발전하기 위한 협업을 통해 국제적 협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이탈리아에서 만든 건축 및 디자인을 하고, 더욱 흥미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생활과 관광 및 교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Italian architect Giancarlo Zema, President of GZDG Group

Building a sustainable, eco-friendly Vertiport

SangJoon KIM / joon1817@kdrm.kr

Italy is one of the world's most famous countries for its history, culture, and architecture. Many of the world's most recognizable buildings were created in Italy. Florence, the Colosseum, the Vatican, the Leaning Tower of Pisa, to name a few. One of the many reasons why Italian architecture is so famous is that it combines so many different architectural styles. Throughout its long history, Italy has been subjected to many different cultural and political influences, which has resulted in a diversity of architectural styles. Italian architecture is a mix of ancient Roman, Renaissance, Baroque, Neo-Classical, and other styles.

With such a deep history and tradition, the intersection of Italian architectural technology and urban air transportation (UAM), future air mobility (AAM), and Vertiport is poised to create a building where the past, present, and future coexist.

Since 2021, the 'Baobab Project' has been underway in Italy to build an eco-friendly Vertiport. The project is a collaboration between Chinese UAM airframe manufacturer Ehang, which is leading the drone taxi business worldwide, and Italian architectural design firm Giancarlo Zema Design Group (GZDG).

Giancarlo Zema

'Giancarlo Zema' is inspired by the environment.

GZDG Chairman and Architect Giancarlo Zema was born in Rome in 1973 and studied architecture at the University of Rome La Sapienza, which was founded in 1303 and is one of the oldest universities in Italy and one of the largest in Europe.

After several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he founded Giancarlo Zema Design Group in Rome in 2001. He is active in architecture, interior design, and industrial design, and is responsible for the Vertiport architecture project, a key infrastructure element of the UAM industry. Giancarlo Zema is an architect very well known in Italy for his innovative and forward-thinking designs, mainly dealing with innovative architecture and design projects. He is particularly focused on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sustainable design, and is known for designing original buildings using organic forms and eco-friendly materials inspired by nature. The Baobab Project, which we will discuss in the middle of this interview, is also inspired by a tree (baobab) that is part of nature.

GZDG's designs emphasize harmony with nature, functionality, and aesthetic beauty, with particular strengths in floating architecture and eco-friendly design. Giancarlo Zema believes that architecture should provide a rich experience for users while minimizing its impact on the environment.

Main projects by Giancarlo Zema

▲ **Waternest** : This project is a self-sufficient floating dwelling, designed using recyclable materials and solar panels. The rounded shape of the dwelling makes harmony with nature and supports a sustainable lifestyle.

▲ **Amphibious** : A semi-submersible hotel and resort designed by Giancarlo Zema that offers a unique experience of living underwater. The project's design focuses on preserving nature while appreciating the underwater environment.

▲ **Trilobis** : This project is an eco-friendly residential unit for living on the sea, designed to combine living underwater with living on land. Trilobis 65 is a prime example of Giancarlo Zema's organic design philosophy.

"The Giancarlo Zema Group is dedicated to exploring new possibilitie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design, creating spaces where nature and humans can coexist in harmony. Their work is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forward-thinking, pointing the way forward for architecture and design.

Giancarlo Zema Group worked with Ehang on a project to build an eco-friendly Vertiport in 2001. What is the current progress?

The UAM/AAM field is very much in its infancy: it took time for ideas to evolve into governance and to prove the feasibility of this new area of sustainable air transportation. Ehang is the most promising company in the UAM/AAM field in recent years. We have been working hard to obtain all the necessary certifications for autonomous aircraft carrying passengers through real flight demonstrations in Europe, the US and the Middle East. We are committed to designing, developing and promoting innovative vertiports with emotional design to launch new experiences of sustainable air tourism in the future.

The Baobab project is an intelligent infrastructure project of bio-architecture, using recycled and recyclable materials, and the latest discoveries in the field of renewable energy (solar, wind, geothermal, hydrogen, which can produce its own energy).

What are the core values of the Baobab Project to build an eco-friendly Vertiport?

It started with my vision of Baobab as the first vertiport integrated with nature – a large tree where colorful 'birds' rest, feed and admire. Being able to see large green parks and nature reserves from above is a true revolution in air mo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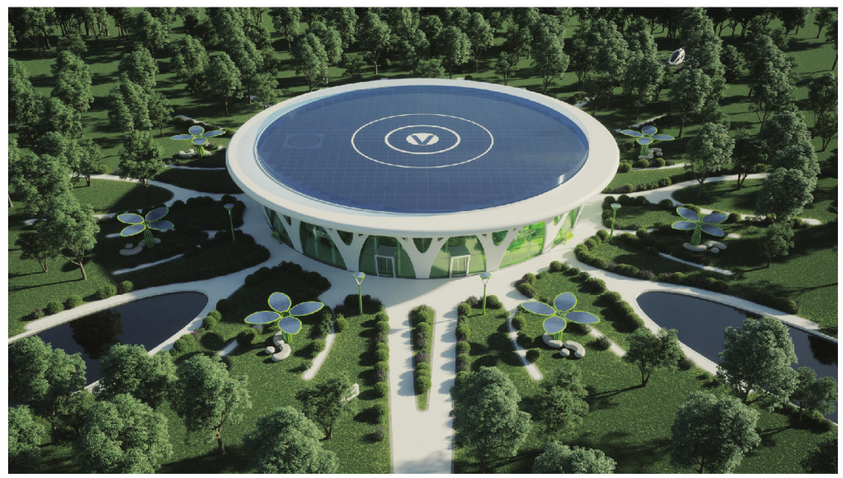
Baobab is a 30-meter-high tower built of steel, laminated timber construction with a stylish interior featuring 360-degree windows, a large common room, a 200-square-meter (m2) panoramic restaurant with cafe, and a connecting lift. It's also highly visible from the sky, with a green space with seating on the rooftop terrace and three landing pads for electric drones that charge wirelessly at the base of the landing pad. The latter consists of special state-of-the-art non-slip solar panels produced by the British company SOLAPAVE, capable of producing more than 300 (k/w) kilowatts. It also consists of integrated LED lighting for night lighting and signage. The Baobab project, in collaboration with the US company e-VERTI SKY, aims to capitalize on the emerging ecotourism sector in China's forest lakes, the Maldives,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Italy.

One of the components that make up UAM is infrastructure. Do you have any plans to expand beyond Europe and into Asia?

Asia has the ideal conditions, both technologically,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It's a place where new horizons in air transportation can develop stronger and faster. As an architectural company, I'm very interested in the Asian market to develop a large infrastructure network of experiential vertiports with a distinctive Italian flair, appreciated abroad, with strong local financial partners.

We are well known for our design of the underwater mansion 'Jellyfish Floating Home'.

GZDG design is highly appreciated in Korea. The Jellyfish Floating Home was actually part of the most complex and fascinating 'amphibious' project in Qatar. It is the first luxury semi-submersible hotel resort with suites that float like large aquatic animals extending from land to sea. It stretches for a kilometer horizontally thanks to two long, wide arms. The hotel is located around a central public welcome area with an interactive museum and water exhibition gallery about underwater life, a large ambient aquarium, and a glass tunnel leading to an underwater observation deck in the center of the entire marine park. Connected to the welcome area by long arms are fitness areas, gardens, and a special outdoor theater with a moving stage that stretches out over the ocean. Smaller floating platforms are anchored by 80 jellyfish suites that offer underwater views within an artificial coral reef. At the end of each platform is a lighthouse. You can get everywhere in the floating structure, and water transportation is provided. It is operated by the Trilobis, a 20-meter aluminum eco-yacht equipped with a hydrogen engine and an underwater observation globe. The project that made the Emir of Qatar fall in love with it in 2006 was too futuristic at the time, and using hydrogen for energy production was a complex technology. But today, everything has changed, and we want to restart this dream, and perhaps incorporate AAM.



Do you currently have any projects in Europe?

In recent years, GZDG has been working hard to roll out intelligent infrastructure for future sustainable mobility. In fact, we designed a green island for ANAS, the Italian national highway company, which is an energy charging hub for smart roads and an electric vehicle fast charging station with fully independent lighting. we also designed a data center building with VertiStop for highway, medical and firefighting rescue and passenger drones. At FS Park for FS Group, the Italian national railway, we are working on building an independent, state-of-the-art smart green parking. Together with Vertiport, we designed the first Varese Mobility Hub, a charging station for hydrogen vehicles, the Hydrogen Forest, and in the field of culture, the Levy Montalcini Foundation Exhibition and Research Center in honor of Italian Nobel Prize winner in Medicine Rita Levy Montalcini. Nature, technology, sustainability, and emotion – all very fascinating topics that require a lot of effort to create functional and ecological projects that can touch people's souls.

About the drone industry in Italy

The drone industry in Italy is growing significantly in the fields of agriculture, video control and rescue for the maintenance of complex infrastructures. However, in the field of passenger drones, Italy is lagging behind, as Italy do not yet have top-of-the-range models that can take off.

Asian technologies are currently the most competitive. Another thing is the development of systems and infrastructure for e-VTOL, where Italy is very interested in finding financial partners to develop experiential air tourism in very beautiful areas.

Italy is home to some of the world's major UNESCO World Heritage Sites, providing a DNA of architecture, art, painting, sculpture, and forward-thinking design that is recognized worldwide, while at the same time providing a human scale and symbiosis with nature.

Italian architecture and its history

Italian architecture has its roots in ancient Roman and Greek art dating back to the 8th century BC. It developed as an artistic expression alongside painting and sculpture, which has had a major influence on all of Western history.

Its main characteristics are the pursuit of ideal beauty and the harmony of form and naturalism. Most importantly, I believe that architecture is an art that expresses and communicates the values of our culture, such as democracy, freedom, creativity and social life. Italy is a small country geographically, but Italian architecture, design, art, fashion, lifestyle, good food and good taste, stemming from centuries of history, are recognized worldwide.

What is the end goal.

My dream is to work internationally, in collaboration with the most important companies and financial groups, with people who love beauty, nature and cutting-edge technologies, in order to develop together. I will continue my commitment to Italian-made architecture and design, especially in Asia, and to offer new living, tourism and transportation experiences for a more exciting and sustainable future.

Join the world s largest UAM/AAM conference & exhibition

K-CONVENTION
In partnership with Korea Tourism Organization

2024 K-UAM Confex

K-UAM Confex

City. Connected

2024. 10. 30. (Wed) ~ 11. 1. (Fri)
PARADISE CITY

Host Incheon Metropolitan City GURS Global UAM Regional Summit

Organizer Incheon Airport · Institute for Aerospace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 · urban movement labs · Urban Land Institute · INHA UNIVERSITY · 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 Korea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 KAMA · 3DFIA · ktl Korea Testing Laboratory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Media Partner 90.7MHz Gyungin Broadcasting · AVIATION WEEK NETWORK